

광주에 일본 문화창고 열린다

日 국제교류기금센터-광주일보사 '페스티벌' 진행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소장 고지마 히로유키)는 광주일보사와 함께 '일본 문화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지역의 유·스퀘어 문화관, 광주롯데갤러리, 광주극장이 특별협력 파트너로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음악, 미술,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일본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1966년 삿포로 동계올림픽 심볼 마크와 1972년 오키나와 해양박람회 심볼 마크 등을 제작한 그는 제1회 바르샤바 국제 포스터 비엔날레 금상, 1997년 헬싱키 국제 포스터 비엔날레 그랑프리 등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그의 작품은 미국 뉴욕 근대미술관, 미국

21일~4월 10일 그래픽 디자이너 가즈마 작품 80점

7월 영화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라쇼몽' 등 소개

▲다양한 그래픽 디자인의 세계 일본의 대표적인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판화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나가이 가즈마(84)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 롯데갤러리(21일~4월10일)에서 열리는 나가이 가즈마전에서는 '동물의 눈', 'LIFE', '물체의 알' 시리즈 등 대표작 80점을 만날 수 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스위스 로잔 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작품 기조는 '생명 존엄 사상'이다. 특히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들은 사랑스럽거나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때로는 외로운 듯한 모습으로 표현된다.

▲클래식의 향연 4월3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젊은 음악가 교류



나가이 가즈마 작 'SAVE' 'I'M HERE'

젊은 음악가 교류 콘서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모습. 사진제공 Courtesy of Toho Co., Ltd.

콘서트'는 광주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연주회는 스위스 바젤로 유학 온 한국과 일본 유학생을 지원하는 아야메 재단(이사장 노가와 히로시)과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가 매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개최하는 연주회다. 서울에서만 열렸던 행사가 지난해 처음 지방(대구)공연을 기획했으며, 올해는 광주 지역 클래식 팬들을 만났다.

바이올리니스트 김원호, 피아니스트 구리타 아사코, 첼리스트 사이카 셀리나 트리오가 무대에 올라 드뷔시의 '바이올린과 피아노, 첼로를 위한 트리오 G장조', 스페타나의 '피아노트리오 g단조 작품 15', 브람스의 '피아노 트리오 1번 작품 8'을 들려준다.

한국 공연에 앞서 16일부터 일본 도쿄, 고베 등 9개 도시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사전 예약 및 문의 02-397-2825.

▲거장의 영화를 만나. 7월말 광주극장에서 진행되는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제'는 세계적인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1910~1998) 감독의 대표작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루카스, 프란시스 포드 코플라 감독 등 할리우드 감독들의 찬사를 한몸에 받았던 구로사와 아키라는 유수 영화제를 휩쓸며 세계 영화사에 이름을 올렸다.

'라쇼몽'(1951년)은 베니스국제영화제 금사자상과 아카데미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으며 '7인의 사무라이'는 베니스영화제 은사자상을 수상했다. 또 조지 루카스의 대표작 '스타워즈'에 모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숨은 요새의 세 악인'은 1958년 베를린영화제 은곰상을 받았다. 그밖에 '카케 무사'로 칸국제영화제 그랑프리(1980년)를 수상했으며 프랑스 정부최고위훈장인 '오피시에'와 이탈리아 정부 최고위훈장인 '대십자가사훈장'을 받았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라쇼몽', '7인의 사무라이' 등 그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립예술단, 봄 기지개 켜다

봄이다. 시립예술단체들도 다채로운 공연으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시립합창단은 화이트 데이인 14일(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갖는 올 첫 공연의 주제를 '화이트 데이'를 연인과 함께'로 정했다.

부지휘자 이준씨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소프라노 박미애(광주대 교수), 플루티스트 윤경아, 드러머 우재식씨가 찬조출연한다.

연주 레퍼토리는 '윌리엄 텔' 서곡, '나팔수의 휴일' 등 정통 클래식곡과 광주 출신 작곡가 국현씨의 가곡 '파란 하늘 저 편쪽지에', '사월, 한 봄날에', 가요



채재일

교향악단, 클라리넷 채재일 협연 무대

합창단, 가요·가곡 등 '화이트 데이 연인과 함께'

무용단, 4가지 이야기 엮어 '모던 발레 페스티벌'

'보고 싶다', '어찌 너를 잊어오' 등 다채롭다. 문의 062-613-8245.

광주시립무용단은 올해 첫 공연으로 '2013 모던 발레 페스티벌'(1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을 준비했다. 무대에만 서있던 무용단 중견 단원들이 직접 안무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공연으로 다양한 느낌의 소품 4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정유진·유보라씨는 동화 '신데렐라'를 비틀어 스스로 삶을 개척해가는 여 주인공의 이야기를 발레로 표현한 '신데렐라'를 선보인다. 강진구씨가 안무한 'Baile Con Corte-멈추지 않는 꿈'은 많은 생각과 감정들로 고달픈 삶을 달래기 위해 춤에 몰두하는 이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강진구·조현지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이승윤·최근호씨가 공동 안무한 '클럽'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다들 경험했을 만한 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작품으로 송성호·이승윤·최근호씨 등이 출연한다.

박우리·정아람작 'At one point(어느

순간)'은 아버지와 딸의 애절한 마음을 가슴 따뜻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문의 062-522-8716.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김영연 부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 이번 연주회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 서곡으로 문을 연다.

봄날에 어울리는 클라리넷 협연도 만날 수 있다. 채재일씨의 연주로 코플랜드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듣는다. 근대 미국 작곡가인 코플랜드의 작품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협주곡'과 더불어 클라리넷 협주곡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곡이다.

지난해까지 서울시향 클라리넷 수석으로 활동한 채씨는 스페인 클라리넷 국제콩쿠르 도스 에르마나스에서 1위 입상했다. 현재는 영남대 교수로 재직하며 금호 챔버스사이터 단원으로도 활동중이다.

피날레곡은 모차르트의 후기 교향곡의 출발점으로 일컬어지는 교향곡 제35번 '하프너'다. /김미은기자 mekim@

금속 비단에 수놓듯...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 31일까지 이경자 입사전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는 오는 31일까지 무형문화재 19호인 이경자 입사 작품전 '항하사(恒河沙)에서 별을 보다'를 연다.

이씨는 조선시대 마지막 입사장인 이학은 선생의 제자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씨의 작품 15점이 전시된다.

입사(入絲)는 금속표면을 무수히 두드려 흠을 파고 금실이나 은실을 끼워넣어 장식하는 기법으로 철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실을 넣는다고 해서 예전에는 '실드러다'라는 말로 표현했다. 금속을 소재로 하기 때

문에 차갑고 무거운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비단에 수를 놓듯 섬세한 것이 특징이다.

이씨의 기법은 조선 중기 이후부터 전래되고 있는 철입사로 바탕 철의 표면을 정을 이용해 가로, 세로로 쪼아 표면이 깔려있던 지면 그 위에 얇은 금·은판이나 선을 놓고 망치로 쳐서 금속을 붙이는 방법이다.

중앙대 예술대학 공예과를 졸업한 이씨는 지난 1984년부터 전국 12개 박물관의 입사사 유물 200여점을 재현했으며 국립민속박물관, 예술의 전당, 치우 금속공예관, 호주



'항로'

파워하우스 뮤지엄 등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삼섬미술관 리움에 이씨의 '108 니르바나'가 소장돼 있다. /김경민기자 kki@

세계비엔날레협 창설 본격화

세계비엔날레협회(IBA, International Biennial Association) 창설준비위원회가 14~15일 이틀간 아랍에미리트 샤르자에

서 열린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12일 창설준비위원회가 광주비엔날레재단을 비롯해 비엔날레재단, 독일국제교류재단 등 공동주최 3개 기관과 21개 비엔날레 대표로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창설준비위원회에서 ▲초대 회장 및 임원 ▲조직구성 및 사무국 개설 지역 ▲협회 운영 방향 및 정관 등의 사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시립합창단 공연 모습.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침없는 뉴스쇼

관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

월~금 밤 9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TV조선